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8. 1.(일)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담당과장	강연경(044-203-3469)	담당자	사무관 김휘경(044-203-2566)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적 사회 향한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국제사회 공동노력 강조

- 문체부 장관,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 첫 참석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7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 문체부 장관 최초로 참석했다.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이상 주요 7개국(G7)],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상 브릭스(BRICS)], 멕시코, 인니, 대한민국, 터키,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유럽연합(EU)

이 회의는 지난해 사우디에서 시범적으로 열린 '특별 문화장관회의'에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 정식으로 개최됐다.

참가국들은 ▲ 문화유산 보호, ▲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 훈련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문화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기술, ▲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문화창의 분야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5개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각료 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문화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기술' 주제로 연설

황희 장관은 7월 30일(금), 회의 주최 측의 공식 제안을 받아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문화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기술'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황 장관은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기술은 세계가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다양성을 보호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가 직면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지털 전환에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고, 이 발언은 각료 선언문에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실감 콘텐츠 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 ‘디지털 뉴딜’ 계획을 포함한 한국의 선도적인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해 디지털 전환에 높은 관심을 보인 참가국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러시아, 한-유네스코 양자 회담 통해 문화교류 확대 방안 논의

한편, 황 장관은 7월 30일(금), 러시아 문화부 올가 류비모바(Olga Lyubimova)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 장관은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20~’21)를 맞이해 양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교류로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작은 위안을 얻었다.”라고 평가했고, 올가 류비모바 장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21. 11. 11.~11. 13.) 주빈국 행사에 황 장관을 초청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20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황 장관은 유네스코(UNESCO)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을 만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유네스코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황 장관은 먼저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국제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것과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유산의 보호와 더불어 해석을 통해 문화의 가치와 의미가 확산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황 장관과 사무총장은 ▲ 남북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문화유산을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 청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국 예술인 참여 및 가상전시 등 협력 추진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한-이탈리아 협력

이 밖에도 황 장관은 7월 29일(목),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복원연구소(ICPAL) 마리오 투레타(Mario Turetta) 소장(차관급)을 만나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준비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현재 한지의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목표로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한-이탈리아 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업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복원연구소는 의령, 전주 등 한지 5종이 문화재 보존·보수용으로 적합하다는 '유효성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7. 31. 한국인 최초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에게 축하 인사 전해

황 장관은 7월 31일(토), 한국인 최초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되어 직무 시작(8. 1.)을 앞둔 유흥식 대주교를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하며 이탈리아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붙임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 개요

별첨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 관련 사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김희경 사무관(☎ 044-203-25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회의명) 2021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 회의
- (일시/장소) '21. 7. 29.(목)-7. 30.(금) / 이탈리아(의장국) 로마
- (초청대상) G20 회원국 및 초청국* 문화부 장관, 국제기구** 등

* (G20)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이상 G7),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상 BRICS), 멕시코, 인니, 대한민국, 터키,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EU

** OECD, UNESCO, ICCROM(세계문화유산보존및복구연구센터),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WCO(세계관세기구) 등

- (주요 일정) △(7. 29.) 개회식 △(7. 30.) 장관회의, 양자회담 등

일시		내용
7.29(목)	18:00~20:00	문화장관회의 개회식
	20:20~21:00	공식 문화행사
	21:00~	공식 만찬
7.30(금)	10:00~13:00	본 회의(1)
	13:00~14:00	공식 오찬
	14:00~15:30	한-러시아 양자회담
	15:30~17:00	본 회의(2)
	17:00~17:30	기자회견
	18:00~19:30	공식 만찬
	19:30~	공식 문화행사

- (논의 의제)

- 문화유산 보호(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through Culture)
- 훈련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Building Capacity through Training and Education)
- 문화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기술(Digital Transition and New Technologies for Culture)
-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문화창의 분야(Culture and Creative Sectors as drivers for growth)